

OUCH!

이달 호 주제..

- 자동완성기능
- 참조/숨은참조
- 그룹 목록
- 감정통제 및 프라이버시

이메일 사용시 유의사항

개요

이메일은 개인적인 것 또는 업무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이메일을 사용할 때, 우리자신이 바로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메일 이용 시 매일매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와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객원 편집자

에릭 콜 박사는 OUCH! 이달호 객원편집자이다. 에릭 박사는 SANS 기술연구소(STI) 및 SANS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강의 및 교육과정 개발 및 개정에 참여하고 있다. 에릭은 SANS 교수진이며 교육 과정 저자이다. 콜 박사는 산업계의 리더로서 최신의 사이버 보안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 완성기능

자동완성 기능은 대부분의 이메일 클라이언트에 제공한다. 이메일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며, 이메일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이메일 주소를 선택해 준다. 이 방법은 이메일 주소를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 수신자 이름만 기억하면 된다. 자동 완성 기능의 문제점은 유사한 이름이 많은 경우에 발생한다. 자동 완성기능을 사용시 잘못된 이메일 주소를 선택하기가 쉽다. 예를 들어 회사의 회계부서의 “김민수”에게 금융관련 정보를 이메일로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대신 자동완성 기능으로 “김민서”(자녀 학원 선생님)가 선택될 수 있다. 이 결과 비인가된 사람들에게 회사의 민감한 정보가 전송되어 버린다. 이러한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보내기”버튼을 누르기 전에 항상 이름과 이메일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

참조/숨은 참조

대부분의 이메일 프로그램은 받는사람이외에 참조, 숨은참조 와 같이 두 가지 옵션이 더 있다. 참조(cc)는 “carbon copy”을 줄임말이며, 이 기능은 참조된 사람에게 이메일을 복사 또는 정보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숨은참조(bcc)는 “Blind carbon copy”의 줄임말로 참조와 유사하나 숨은참조한 사람은 이메일을 받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참조/숨은참조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이메일을 보낼 때 이메일에 참조인이 있는 경우, 우리는 발신자에게만 답장할 지 아니면 숨은참조가 포함된

이메일 사용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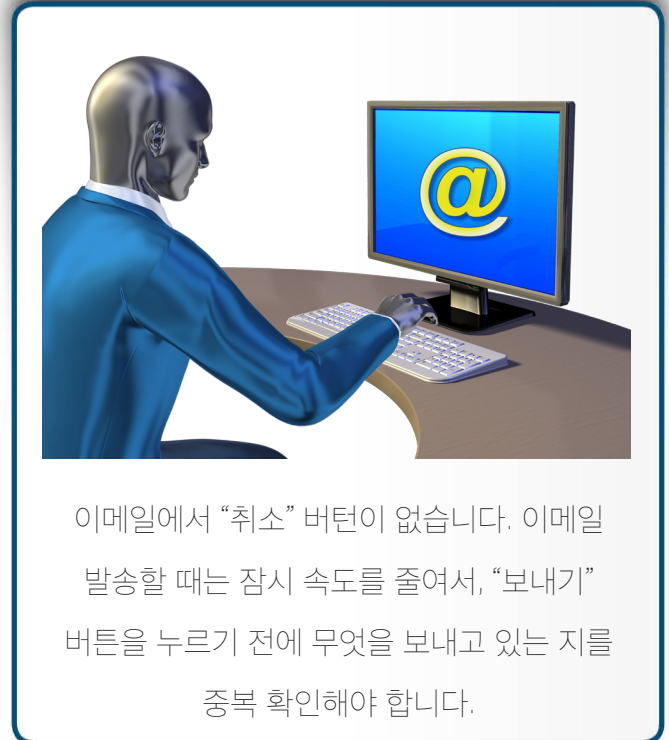
모든 사람에게 답장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답장에 좀 민감한 내용이 있다면 발신자에게만 답변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는 전체가 다 받아볼 수 있는 “전체 답장” 옵션을 사용하면 안된다. 숨은참조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민감한 메일을 발송할 때, 숨은 참조를 이용하면 상사와 같이 누군가에게 몰래 이메일을 복사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상사가 “전체 답장”으로 답장을 한다면, 모든 수신자들이 숨은 참조로 그 사람이 포함된 것을 알게 된다.

그룹 목록

그룹 목록은 단일 이메일 주소로 표현된 이메일 주소를 모아 놓은 것이다. 이것은 메일링 리스트 또는 그룹명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group@example.com 이메일 주소로 그룹 목록을 만들 수 있다. 이 주소로 이메일을 발송하면, 그룹의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에게 발송된다. 그래서 그룹 목록으로 이메일을 보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게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추가로 그룹 목록에 있는 이메일로 답장을 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보낸 사람한테만 답장을 보낼려고 의도하였는데, “전체 답장”을 누르게 되면, 전체 그룹 목록이 포함되어 의도하지 않게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메일을 읽게 된다. 자동 완성 기능으로 그룹 목록이 선택될 수 있으므로 이것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 동료인 minsoo@example.com 단 한 사람에게 이메일 보내려고 하였으나 자동완성 기능으로 인해 그룹 목록으로 이메일이 발송될 수 있다.

감정통제

감정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메일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감정적인 상태에서 이메일을 발송하면 미래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아마 친구관계나 직장 등에 큰 비용을 지불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갖고 생각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흥분된 감정을 발산해야 한다면, 이메일 프로그램을 열어서 받는사람/참조/숨은참조가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말하고 싶은 것을 적기 바란다. 그리고 일어나서 컴퓨터에서 벗어나 잠시 커피한잔 한다. 돌아와서 이메일을 삭제하고 다시 시작해 보기 바란다. 또는 이메일로는 정확하게 의도를 전달하기 힘들다면 직접 전화로 얘기하는 것이 좋다.



이메일에서 “취소” 버튼이 없습니다. 이메일 발송할 때는 잠시 속도를 줄여서,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무엇을 보내고 있는 지를 중복 확인해야 합니다.

이메일 사용시 유의사항

프라이버시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이메일은 프라이버시 보호기능이 거의 없으며, 누구나 접근만 하면 읽을 수 있다. 추가로 전화나 개인적 대화와 다르게 이메일은 한 번 보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한 번 보낸 이메일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송될 수도 있고 인터넷에 공개되어 인터넷에 영원이 남을 수 있다. 만약에 정말 사적인 내용이라면,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많은 나라에서 이메일은 법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메일 발송 시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이메일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회사 컴퓨터를 이용해서 개인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직장에서 이메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항은 회사로 문의해 보기 바란다.

자세히 알아 보기

<http://www.securingthehuman.org>를 방문해서 OUCH! 뉴스레터를 읽어 보시고, 월간 OUCH! 정보보호지식 뉴스레터를 구독하십시오. 그리고 SANS 정보보호지식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글판

본 문서는 한국의 ITL(<http://www.itlkorea.kr>)에서 번역하였습니다. ITL 은 미국 SANS 연구소의 한국 파트너로서 IT 거버넌스 및 IT 보안 분야의 최신의 지식과, 양질의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itl@itlkorea.kr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OUCH! 이메일 피싱 공격: <http://www.securingthehuman.org/ouch/2013#february2013>
- OUCH! 스피어 피싱: <http://www.securingthehuman.org/ouch/2013#july2013>
- 공통 보안 용어: <http://www.securingthehuman.org/resources/security-terms>

OUCH!는 SANS Securing The Human 프로그램에 의해 발행되며 [Creative Commons BY-NC-ND 3.0](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 이 문서는 출처를 밝히고, 상업적 목적 또는 수정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번역 및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ouch@securingthehuman.org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위원회 : Bill Wyman, Walt Scrivens, Phil Hoffman, Lance Spitzner, 번역: 진수희(ITL Inc.)